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LS MnM, 새만금산단에 1조1600억 투자

전북도·군산시 등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 협약 2026년 상반기 착공... 전기차 80만대 공급 규모 향산니켈 4만 생산 목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 LS MnM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구동휘 LSMnM COO 등이 참석했다. LS MnM은 금속추출 및 정제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다.

또한, 이번 새만금에 투자 예정인 컴플렉스 공장은 LS MnM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자체 기술을 적용하고, 그룹 계열사인 LS-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전구체 공정과 연결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LS MnM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LS그룹은 제조업 분야 역대의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라면서 "기업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새만금산단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 MnM의 통 큰 투자를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에서 LS MnM과 전북도가 힘을 모아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자"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LS MnM의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는 "LS그룹 이차전지 사업의 핵심거점인 새만금에서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설비 투자로 그룹의 배터리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된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K-배터리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 가치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군산=김판곤 기자



29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LS MnM 새만금 산단 투자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도석구 LS MnM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정운천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투자 협약식을 갖고 있다.

8월 이후 현재까지 17개사 3조2645억원... 도내 기업 투자 열기 뜨겁다

산단 분양률에도 영향... 민선8기 10개월 평균 분양 170만5000㎡

전북도의 투자 열기가 뜨겁다. 특히, 8월 쯤버리 이후에도 이차전지, 기계, 금속, 식료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 유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투자 유치 실적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북도의 8월부터 이달 29일까지 현재 기업 유치 실적은 17개사 3조2,645억원에 달하며, 채용예정 인원도 2,437

명으로 집계 됐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 29일 LS MnM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 시설 1조1,600억원 투자를 비롯해 약 4개월간 4개 기업 2조8,206억원에 이르러 있다. 계속된 도의 투자유치는 도내 산단 분양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선 8기 10개월 평균 분양 실적은

170만5,000㎡로 민선 6기(52만6,000㎡), 민선 7기(85만7,000㎡)에 비해 각각 3.2배,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민선8기인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투자 협약은 82개사 10조591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북도의 기업 투자 문의와 협약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친 기업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모티브로 △1기업-1

공무원 전담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킬러 규제 혁파 △노사화합 모범지역 선포 등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지역에서도 인구 유출은 주된 고민거리"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선결 과제는 기업 유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도는 양질의 기업들이 전북에 와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참여 통한 속의민주주의 실현

도교육청, 전북교육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내달 4일까지 위원 공모... 이메일·방문접수

전북도교육청은 참여를 통한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북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현안, 이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과 숙의합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해당 교육공론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학부모대표·시민단체대표 등이 있다. 주요 역할은 △합의를 통한 발전 방향 제시 △교육행정의 주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제시 △공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한

제시 △교육행정 현안 과제 해소 방안 제시 등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공론화위원회 외부위원(도민) 8명을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상 전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2월 4일까지 이메일(hwarang8799@jbedu.kr) 또는 방문접수(교육협력과 교육협력팀)하면 된다. 한편 선정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며, 추첨 날짜는 12월 14일이다. 임진진 교육협력과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아주 작은학교 통합, 폐교 활용, 학교 신설·이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북교육 발전에 관심있는 도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특수학생 교육기회 확대

도교육청, 내년 도내 초중고교 등에 특수학급 37개 신설 교원 수급 문제 예상 따라 특수교사 50여명 충원키로

전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에 전북 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특수학급 37개를 신설키로 했다. 증설을 포함하면 모두 60학급 이상이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 신설되는 특수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10학급,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11학급, 고등학교 2학급 등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급 편성 지침을 완화해 기존 특수교육 대상자가 3명 이상인 학교에만 신설 가능했던 특수학급을 1명으로 낮췄다. 다만, 2024학년도 특수학급 증가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특수교사를 50여명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정원을 감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근거리 배정 요청으로 소인수 학급 또한 증가 추세라면서, 교육부에 현 상황을 보고한 후 교사 정원 및 정원의 기간제교사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